

發 刊 辭

人間은 物質的 豊饒를 누리게 될수록 아름다운 自然環境속에서의 健康하고 幸福한 삶을 憧憬하게 된다. 經濟發展과 産業化는 各種 汚染과 自然毀損을 加速化시키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自然의 價値는 增幅하게 된다. 이제 自然은 生産의 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安樂한 棲息空間으로서 더욱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生態學的 見地에서 樹木은 陸上生態系內에서 一次生産者로 에너지 供給의 根源이 될 뿐만 아니라, 各種 生物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棲息處로서 絶對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가 하면 汚染된 空氣와 물을 맑게 淨化시켜 주는 樹木은 우리에게 必須不可缺한 自然環境의 核心이 된다. 따라서 “樹木保護”란 말은 “自然保護”와 同意語로 받아 들여질 정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全國土의 67%가 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樹木들이 生育하고 있다. 이 樹木들은 잘 活用되는 한편 잘 가꾸고 간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속에 棲息하는 各種 動植物역시 잘 保護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들 가운데 學術的으로 또는 歷史的으로 價値가 있는 것이나, 傳說들이 얽힌 老巨樹들은 文化財 또는 天然紀念物로서 적극 保護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주위의 버려진 空閑地나 가장자리땅들을 모두 綠地로 바꾸고 숲으로 가꾸어 우리 江山을 푸르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安樂하고 潤澤하게 살아갈 터전으로 造成하여 後孫에 물려줄 任務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 이같은 일들은 政府가 主導해 가야할 重要한 일이겠지만, 全國民的 關心과 自發的 參與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性質의 것이므로 民間團體의 相補的 役割이 期待되어 왔다.

이에 樹木保護研究와 관련된 大學教授들과 研究機關의 研究員들을 비롯하여 關心이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1年餘前에 韓國樹木保護研究會를 社團法人으로 結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本會는 樹木을 保護하는 새로운 技術의 開發研究, 樹木病蟲害와 기타 各種被害의 診斷 및 防除法處方, 病蟲害防除效果의 評價, 樹木病蟲害에 관한 智識의 補給 및 教育 등의 事業을 展開할 準備를 하고 있는 中으로 우선 첫 事業으로 會誌를 發刊하기로 한 것이다. 이 創刊號에 여러가지 不備한 것이 많음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바이나 號를 거듭하면서 다듬어 나아갈 생각이다. 아무쪼록 이 작은 冊子가 우리나라 樹木保護, 나아가서 自然保護에 一翼을 堪當하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1995. 3

會長 朴 基 南